

광주 혁신기업 28개사 'CES 2026' 참가

광주시가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기업을 지원, 광주의 혁신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6일부터 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 광주공동관을 운영, 시 지원기업 17개사를 포함한 지역 혁신기업 28개사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지원기업은 ▲인비즈 ▲데이터투어너지 ▲이노디테크㈜ ▲썬엘비에스테크 ▲제로웰㈜ ▲썬스페이스이아이 ▲주식회사 영앤 ▲썬유니컴퍼니 ▲주식회사 정선메드 ▲주식회사 메리랜드 ▲유한책임회사 센도리 ▲맨인블록 주식회사 ▲주식회사 울더타임 ▲주미당 ▲주식회사 사각 ▲썬밸리온시스 ▲브레인웍스㈜ 등 총 17개사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정보기술(IT),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다. 올해는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대거 공개될 예정이다. 전 세계 160여개국에서 4500여개 기업이 참가하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SK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망 스타트업 등 1000여개 사가 참가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기업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7월 지원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교육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상담(컨설팅) 등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



광주시, 광주관 운영...역대 최대 17개사 세계시장 진출 지원

지역기업 7개사 'CES 혁신상' 수상... 혁신기술 세계무대 선배

원했다. 그 결과, 이번 'CES 2026'에서 광주시 지원기업 5개사를 포함한 지역기업 7개사가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처음 신설된 '여행 & 관광(Travel&Tourism)' 분야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썬엘비에스테크(대표 이시완)는 인공지능(AI) 기반 차량·보행로 연결 설계 시스템을 개발해 이동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구현했다. 이 기업은 지난해 7월 광주지점을 설

립해 고용창출과 매출증대, 특허등록 등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노디테크(대표 주보훈)는 치과 투명교정치료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진단·치료계획 지원 솔루션으로, '디지털헬스(Digital Health)'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수만건의 성공적인 임상 데이터를 학습해 3D 구강 스캔으로 치료 계획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이다.

주식회사 울더타임(대표 조상은)은 여성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안전 플

랫폼 '더가이드'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 for All)'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과 모션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구조 요청 기능 등을 통해 여성 안전을 강화했다. 울더타임은 유럽·미국·일본 등 6개국 이상의 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인공지능·위성데이터·스마트시티·웨어블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고스트패스(대표 이선관)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썬인디제이(대표 정우주) ▲마인스페이스(대표 임정현) ▲썬센트(대표 권일봉) 등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혁신상을 수상했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 대불산단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국비 24억 확보 조선업·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교육으로 산업재해 예방

전라남도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사업의 2026년 국비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전체험교육장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끼임·화재 등 위험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해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체득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 규모로, 고용노동부가 건립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들어 9월 현재까지 전남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36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이 대불산단에서 발생했다. 조선업이 밀집한 대불산단에서는 크레인 중량물 이탈, 지게차 충돌, 블록 낙하 등 고위험 작업에 따른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대불산단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언어 장벽으로 기존 이론 중심 안전교육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체험형 안전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고용부가 건립해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장은 전국 8곳이며, 전남에는 담양과 여수에 설치돼 있다. 전남 지역 신규 유치는 쉽지 않은 여건이었으나, 전남도와 영암군이 조선업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장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2026년 국가 예산에 국비 반영을 이끌어냈다.

대불산단에 들어설 안전체험교육장에는 떨어짐·끼임 체험존, 화재·폭발 체험존, VR 가상 안전체험관이 조성된다. 특히 조선업 특화 체험시설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대불산단은 조선업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특화 안전교육장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으로 근로자의 사고 예방 역량과 안전수칙 준수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필 기자

수도권에 66.5% 몰림... 청년일자리 감소기업 '지방 실종'

광주·전남 3개사뿐... "생색내기 선정" 비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감소기업' 중 수도권 기업이 66.5%를 차지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지역 편중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청년일자리 감소기업은 총 224곳이다.

지역별로 경기 72곳(32.1%)·서울 71곳(31.7%)·인천 6곳(2.7%) 등 수도권이 149곳(66.5%)에 달했다. 반면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은 8곳(3.6%)에 그쳤다.

특히 광주·전남은 각각 1곳, 2곳으로 총 3개사에 불과했다.

광주는 썬현대하이텍 1곳, 전남은 썬이앤엔테크 나주본점과 썬에스이 등 2곳만 이름을 올렸다. 전북 3곳, 제주 2곳을 포함해도 호남·제주 전체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청년일자리 감소기업 제도는 청년층의 중소·중견기업 인식 개선과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목표로 2016년부터 시행해 왔다.

그러나 매년 선정 결과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고용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선정 기업들이 일반 기업보다 청년 신규 채용이 평균 12명 많고, 보수총액도 63만원 높으며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 해소는 사실상 실종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선정 기업에는 향후 3년간 정부 지원사업 우대, 금융 금리우대,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수도권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광주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일 자리를 찾아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광주·전남에서 고작 3곳 선정은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 중소기업 기업을 키우겠다는 말과 실제 결과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기업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치를 드러난 수도권 몰림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인 기자

광주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에는 1만5000 세대에 육박하며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5일 광주·전남 No.1 부동산플랫폼 사랑방부동산이 2026년 광주 입주 예정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17개 단지 1만4962세대(첨단3지구 장성군 지역 포함)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 통계 기준으로 작년 입주 물량인 7000여 호와 비교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10년 연평균 입주량(1만0261호)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자치구별 입주 예정 물량을 살펴보면 북구가 7062세대로 가장 많다. 이어 ▲서구 1924세대 ▲동구 1269세대 ▲광산구 993세대 ▲남구 349세대 순이다. 광산구는 광주 경계와 인접한 전남 장성(첨단3지구) 물량 3365세대를 포함하면 실제 공급 영향력은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 형태별로는 먼저 민간공원 특례사

올해 광주 아파트 1만5000세대 집들이

사랑방부동산, 입주 예정 아파트 조사... 작년의 2배

업 아파트들이 두드러진다. 서구 위파크 마르공원(917세대), 위파크 더센트럴(중앙공원2지구 / 695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북구 위파크 일곡공원(1004세대)과 중공공원 힐스테이트 2·3BL(1466세대)도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단지 아파트도 눈에 띈다. 4월 입주 예정인 북구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3214세대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구에서는 계림4구역 재개발한 교대역모아엘가 그랑데(815세대)가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신규 택지지구에 조성될 단지들도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첨단3지구의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1520세

대), 첨단제일풍경채 그랑포레(1845세대), 첨단제일풍경채 A5BL(584세대)와 함께 선운2지구 B·2BL 예다움(554세대)은 하반기에 집들이를 시작할 전망이다.

한편 전년 광주 분양시장은 미분양 증가와 시장침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한 해를 보냈다. 그에 따라 착공도 최근 10년 연평균 대비 극히 적은 수준(국토부 2025년 10월 누적 기준 296호 / 최근 10년 연평균 1만584호)을 보였다. 통상 착공 후 준공까지 3년 내외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8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역 내 분양 대기 중인 아파트들이 전남·일신방직 부지 챔피언스시티, 재개발(학동4·신가·광천 등), 민간공원(중외

공원 1BL·수랑공원) 등 다수가 있는 만큼, 이들 현장의 정상 진행 여부가 향후 공급 추이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랑방부동산 최현웅 과장은 "올해는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은 만큼 소비자의 선택지도 늘어날 것"이라며 "신축 분양권과 전·월세 매물은 물론, 신축 이주를 위해 매도하려는 기층 주택 매물도 점진적으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증가한 공급량이 시장에서 소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입주량이 2027년은 7000여 세대, 2028년은 더 줄어들게 되면, 점차 공급과 수요가 균형점을 찾아갈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라면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춰 다양한 선택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